

육군준장 김태업

한미연합사단 부사단장

김태업 준장의 장교 생활은 198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 소위로 임관하면서 시작되었다. 군생활을 하면서 받은 교육으로는 보병 군사 초군반 및 고군반, 육군 정보학교, 육군대학 등에서 수학하면서 보병장교로서의 자질을 계속 향상시켜왔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사학을 전공함으로써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원 학력으로는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략안보학 석사, 그리고 워싱턴 국제대학교 국제정책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초군반을 졸업한 이후에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소대장으로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한 김태업 준장은 이후에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대통령 경계부대에서 근무했다. 1991년에 군사 고군반을 졸업한 이후에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103기계화보병대대에서 1차 중대장 보직을 성공리에 끝마친 이후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0기계화보병사단 예하 118기계화보병대대에서 2차 중대장으로 역임했다. 1995년에는 미 8군 예하 1전투지원협조단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한 이후에 1997년까지 미육군 34지원단의 인사계획장교로 복무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김태업 장군은 인도-파키스탄에 UN 평화유지군 관찰단원으로 파병되었었다.

PKO 관찰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1998년부터 1999년까지 12사단 예하 3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했으며, 육군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9군단 작전처에서 교육훈련장교로 근무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김태업 준장은 키르기스스탄에 파병되어있는 924의무지원단의 어학 장교로서 2번째로 해외 파병되었으며, 귀국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사단 작전계획장교로 근무했다. 중령으로 진급한 후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사단 예하 제2대대장으로 역임한 후에 7개월 동안 민사계획장교로 1차 다국적군 사령부로 파병되었다.

김태업 준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으로 근무한 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연습처 연습과장을 역임했다. 준장으로 진급한 이후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합사/지구사 작전처장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연합사/지구사 기획참모차장을 역임했다.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김태업 1준장은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한측 부사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상훈으로는 Republic of Korea Chief of Staff of the Army Commendation, Foreign Institution Appreciation Award,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Commendation, the Foreign Institution Commendation, Republic of Korea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ommendation, the United Nations Medal, the Army Commendation Medal, and the Legion of Merit

김태업 장군은 임부자 여사와 함께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있다.